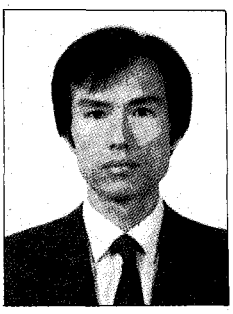
소비자는 왜 불안해 하는가

무조건적 불신 · 불안도 큰 요인으로 작용



권 영 태
한국소비자보호원
식품시험실장

언제부터인가 나의 마음속에는 고향은 곧 농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다. 학창시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저녁시간,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마을 어귀를 들어설 때 차 난간에 매달려 다가오는 고향의 정경과 그 속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상큼한 초원의 내음, 푸르른 고향의 들판을 함께 만끽하는 것"

그러나 이젠 어느새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도 서울로 자리를 옮기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고 때로 고향을 찾아가 보아도 옛날의 산천은 그대로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달리한지가 오랜 세월이라 그때의 정겨움도 한낮 추억일 뿐이지만 그래도 옛날 아버님을 따라 농사일을 거들던 기억이 나를 항상 농촌에서 자라온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농촌에의 애착심을 갖게한다. 지금도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할때면 어떻게하면 아이들에게 농부의 노고와 농산물의 고마움을 일깨워 줄것인가에 시간과 생각을 골몰하지만 항상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아쉬워하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 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농촌과 농업은 작게는 우리의 고향이요 식단을 꾸미고 크게는 국가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적정수준이며 안전한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상업화의 본격전으로 다시 한번 생활의 대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모든 것이 대량생산 · 소비라는 특유의 Mass Generation을 탄생케하였고 농업 또한 시대에 맞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중 대표할 만한것이 농약의 개발 및 농업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생산의 시대, 농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한 현대농업의 총아라할 수 있는 농약, 과연 이것은 필요악인가?

농약은 병충해를 방제하여 농작물의 증산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직 · 간접적으로 농약이 지니는 독성때문에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살포된 농약은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어패류의 체내에 축적되어 다시 인간에게로 그 해가 돌아오게되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크게는 생태계의 균형을 깨어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혹자는 살포된 농약은 그 90% 가량이 껍질에 존재하며 과채류의 경우는 씻으면 30%정도가 제거되고 70%정도는 잔류하여 있으며 그래도 과일의 경우는 깍아서 먹으면 되지만 깍아먹을 수 없는 야채류는 유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또한 어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위당 농약 사용량은 미국의 것과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약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제한된 면적에서 소출량을 늘리기 위하여는 어쩔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농사의 적정 수준으로 안전도와는 무관한 것인지 다시한번 살펴야 한다. 혹 이미 시골논에서 메뚜기, 개구리, 미꾸라지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인지?

不信은 문제를 만든다

현대농사에 필요불가결한 농약, 과연 이것을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량을 사용하고 있는가? 혹 무분별한 판매전략과 맞물려 위험성과 독성을 외면한 채 기업은 농약의 효력만 과대 선전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오용 또는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불신 때문에 우리농촌은 심각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의 무분별한 선호로 소비자들은 실상을 모르고 비싼 것으로 식단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국내 농산물의 불신과 함께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국내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쇠퇴로 인한 타격이다.

이 두가지중 가장 위험한 것은 두번째인 수입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피해들이다.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은 농촌대로 그 대응방법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농현상이라는 유사이래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인구이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 현상을 유발시킨다. 그것이 곧 도시 인구의 집중화로 이어지고 농촌은 황폐화되고 도시는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찌들리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잉태하고 있다. 임자없는 농토, 곡물이 자라지 않는 땅들, 이렇게된 상태라면 누가 농촌을 지킬 것이며, 누가 이 땅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누가 그것을 먹을 것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땅을 사랑하고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민족이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잠시 쉬어가는 망설임의 시간을 지나면 다시 우리 농촌은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모두가 동참하여야 한다.

첫째 농약사용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시행하며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위의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때의 위해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의 강구.

셋째 잔류 농약량의 기준치 설정 등의 행정적 노력과 농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와 계몽활동.

넷째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하는 국민적 캠페인 및 농촌을 이해하고 도우기 위한 다각적 운동 지원(아동교육을 통한 캠페인 등)

다섯째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농약 살포 행위의 근절을 위한 행정적인 지도 및 관리 강화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여섯째 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선행조건 아래 농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품질에 대한 경쟁만이 다변화의 사회에 부응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막연한 불신 이젠 버려야

이렇게 하여야만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깨끗한 우리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으며 농촌 또한 살길이라 여겨진다. 여기에 더불어 소비자들의 우리농산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 및 불안이 불식되어져야 한다.

"身土不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귀이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긴 안목을 갖고 눈앞의 이익으로 身과 土가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언젠가 나는 그 날을 그려본다.

내가 사랑하는 자손에게 우리의 활기있고 아름다우며 생동감 넘치는 친근스런 농촌의 풍경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곳이 우리모두의 고향이라며 흐뭇해 하는 모습을 .....

농약정보